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환경특설시 인천
배포일자		2021년 9월 2일(목) 총 3매		
담당 부서	미래산업과	담 당 자	• 바이오산업팀장 이규석 ☎440-3101 • 담당자 정현경 ☎440-3279	
사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바이오 자원공유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마련
 - 인천 바이오산업 자원공유 플랫폼 ‘인천 바이오 맵’ 구축 -
 - 자원공유 서비스와 네트워킹 전담조직 ‘바이오 코디네이터’ 구성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8월 30일 인천 바이오산업의 자원공유 기반을 구축으로 대기업, 중소·스타트업, 대학, 연구소, 병원, 공공기관 등이 공존·협력하는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바이오 자원공유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해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우리시의 강점 바이오 뉴딜을 추가한 ‘인천 바이오 뉴딜 추진계획’ 마련을 위해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바이오 자원공유 네트워크 활성화 전략을 위한 추진과제로 반영되어 올해 4월, 사업추진을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바이오 스타트업과 대학 등 현장방문과 관련기관 업무협의를 거쳐 완성됐다.

기술적 측면에서 막대한 연구개발에서 상업화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수익 창출까지 무수한 위험의 존재로 창업과 중소기업의 사업화가 어려운 바이오산업은 개별·분산형 연구방식에서 다양한 주체와의 연계를 통해, 기업 혁신을 위한 기술과 아이디어 개발에 외부자원을 활용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방식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

이 같은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인천시는 인천 내 바이오산업 주체인 산·학·연·병·관이 보유한 기관정보, 인력, 기술, 시설·장비 등 다양한 자원을 총망라하는 인천만의 바이오산업 자원공유 플랫폼 ‘인천 바이오 맵’ 구축과 기관별 자원공유 서비스와 네트워크 형성 간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네트워킹 전담조직 ‘바이오 코디네이터’ 구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바이오 자원공유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총 사업비는 약 36억 원으로, 2021년 기획과 구축 준비를 시작으로 2022년 구축 개시, 2023년 시범운영, 2024년 시스템 정식운영을 목표로 단계별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2022년도 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인천 바이오산업에 특화된 기관간 자원공유와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지난해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 지정과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유치에 이어 이번 해 K-바이오 랩허브 구축 후보지 선정 등 글로벌 바이오 허브로 급부상하고 있는 인천 바이오 클러스터 내 기관 집적을 가속화하고, 바이오산업의 가치사슬 구조를 강화해 대기업과 중소·스타트업이 공존하는 인천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새로운 지식·기술의 개발과 확보가 중요한 바이오산업은 개별 기업들의 독자적 운영보다 기업의 사회적 네트워크 확보를 통한 연구개발 운영과 기술 확보가 기업 발전의 주요 전략인 만큼, 바이오산업의 창업·개발 촉진과 개방형 혁신 유도를 통해 글로벌 바이오산업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아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다짐을 밝혔다.